

충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건의서

찬란했던 중원문화와 행정의 중심지였던 유서깊은 충주시는 정부시책을 바탕으로 1995. 1. 1. 중원군과 통합

인구 22만의 도·농복합형 도시로 다시 출범하였으며 21세기에 중부내륙의 핵심도시로 발전함은 물론 지방화 시대를 앞당기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용트림하는 지역으로서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통합시민의 일치된 의견을 모아 건의합니다.

그간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분구 청원(건의)이 비단 우리시만은 아닐 것이며 여야간 첨예한 선거구 확정 대결이 지속되었고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의 조정작업 마무리와 그 윤곽은 이미 지난 4월부터 발표되고 있으나 당면한 우리시의 여건과 시민정서로 보아 차기총선에서부터 2개 선거구로 분구해야 함을 건의드리게 되었으며

그 당위성을 피력하자면

- 첫째, 그 동안 충분한 분구대상 지역으로 여건이 충족되면서도 단일 선거구로 통합되어 왔으나 세계화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15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분구하는 것이 전체 시민의 소박한 희망이며 지금까지 충주 시민의 소외감을 불식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둘째, 우리시와 유사한 중소도시를 비교하여 도시 규모나 인구수 등 시세를 비교할 때 현격히 우리시 보다 작은 도시에서도 오래전부터 분구되어 있으며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 전라북도 선거구수가 13~14석으로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보다 5~6석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형평성으로도 도저히 불합리한 실정입니다.

- 셋째, 로는 선거구획정 특위위원회의 전국 획정 선거구 분구 증감내역을 볼 때 20개구 이상 증가됨을 볼 수 있으나 충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감소하여 충주시나 충북도세가 정치적으로 악화될 것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감소되는 선거구를 충주시로 배려함은 시대적 요청과 흐름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 넷째, 충주시는 충북의 수부로서 역할해 온 도시이나 도청을 청주로 옮겨가고 제3공화국때 경부고속도로의 충주관통안도 있었으나 철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을 빗겨갔으며 현직 대통령 공약사안인 중부내륙 고속도로도 뒤늦게 지연 착공 예정되는 등 그 동안의 중앙정부로부터의 모든 수혜나 지원봉사 기능이 단절되다시피한 실정으로 시민의 감정은 매우 고조되어 있어 도·농통합형 중소도시의 상한선을 21만명 정도로 특별 예외 규정을 두어 분구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무한 경쟁시대에 어려운 농촌과 중소도시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근원적인 치료방법 임을 인식하시어 주시기 바라면서

통합 충주시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구하여야만 할 것임을 충주시민을 대표하여 30명 충주시의원 연서로서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이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10. .

충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